# 성인남녀 10명 중 8명, '주4일 근무제' 긍정적

▲ 사진=타운뉴스DB

한국의 성인남녀 80%가 주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5일 '머니S' 에 따르면 구인 구직 플랫폼 '사람인' 이 이날 성인남녀 4,155명을 대상으로 '주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' 을 조사한 결과 83.6%가 '긍정적' 이라고 답했다.

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'휴식권이 보장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서' (72.4%, 복수응답)가 1위였다.

이어 '충분한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' (51.7%), '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' (32.1%), '휴일이 늘어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성장할 것 같아서' (21.2%), '자녀 돌봄 등이 용이해져서' (20.1%), '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 같아서' (16%), '부업으로 수입을 높일 수 있어서' (10.7%) 등의 순이었다.

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(682명)들은 그 이유로 '임금이 삭감될 것 같아서' (60.4%, 복수응답)를 첫 번째로 꼽았다.

이어 '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 같아서' (45.3%), '휴일이 많아 업무 감각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' (19.6%), '주4일을 시행 못하는 일부 업종의 박탈감이 클 것 같아서' (15.4%), '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 같아서' (15.1%), '지출이 늘 것 같아서' (11.4%) 등을 들었다.

응답자 62.6%는 앞으로 주4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. 도입 시기는 '2025년' (28.5%), '2030년' (20.5%), '2023년' (13.6%), '2022년' (10.8%), '2024년' (7.4%) '2026년' (6.4%), '2021년' (4.6%) 등의 순으로, 64.9%가 2025년 안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.

# 구직자 40% "현재 빚 있어"

한국의 구직자들 5명 중 2명은 현재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4일 '뉴시스' 에 따르면 구인 구직 플랫폼 '사람인' 은 이날 구직자 1,498명을 대상으로 '빚 현황'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.5%는 '현재 빚이 있다' 고 답했다고 전했다.

구직자들이 현재 갚아야 할 빚의 규모는 평균 3,28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8만 원 증가했다.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2,261만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무려 1,026만 원이나 증가했다.

빚을 진 응답자 중 64.2%는 코로나19가 빚을 지는데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.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'좁아진 채용문으로 인해 취업이 늦어짐' (64.3%·복수응답)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'아르바이트 자리가 급감해 수입 감소하거나 없어짐' (41.9%), '취업 부담이 늘면서 취업 사교육비가 증가함' (21.6%), '가계가 어려워져 용돈, 학비를 지원받지 못함' (18.5%), '가계가 어려워져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지원해야 함' (14.9%) 등을 꼽았다.

빌린 돈을 사용한 용도로는 '교통비, 식비 등 생활비' (50.3%·복수응답), '자취방 전-월세 자금' (30.2%), '등록금 등 학비' (27.9%), '학원 수강 등 취업 준비비용' (10.7%) 등을 들었다.

남은 빚을 갚는 방법으로는 '취업 후 월급' (83.5%·복수응답)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'아르바이트 등 비정기적인 수입' (16.3%), '또 다른 대출로 돌려 막기' (9.9%), '적금 등 모아둔 목돈' (7.3%), '주식 등 투자 수익' (5.8%) 등을 들었다. 빚을 모두 갚기까지는 평균 4.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.

# 디지털 풍랑 속 은행원이 사라진다

▲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. 사진=shuterstock

'화이트칼라(지식노동자)' 의 대명사로 불린 은행원이 사라지고 있다.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지점 폐쇄와 비대면 금융 활성화 등 높은 변화의 파고가 일자리를 쉴 새 없이 위협한 결과다.

디지털화에 따른 은행 임직원의 급격한 감소는 '은행원' 의 개념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. 과거 단순히 금융전문가를 원했던 은행은 이제 디지털 인재 영입과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. 은행이 IT 기업화돼 가는 것이다.

4일 '아시아경제' 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KB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을 떠난 임직원은 총 2,628명으로 나타났다. 대규모 공채 등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인 데다 3040세대 등 비교적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확대한 영향이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.

은행을 떠나는 임직원들은 올 하반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. 비대면금융 일상화 등으로 지점폐쇄 등도 가속화되면서 은행 임직원들이 설 자리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서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가 전체의 80%에 육박하지만 창구 등을 통한 거래는 15%에 불과하다.

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4,398개로 1년 전보다 191개 줄었다. 이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감소치(96개)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.

특히 이들 은행은 올 하반기에만 추가로 약 100개 이상의 점포를 통폐합할 계획이다.

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
"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."
천관우 변호사 그룹
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
이민법, 상법,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
고국에 계신 부모님/배우자 영주권 신청
이민법 영주권 (취업 1,2,3순위 이민 – NIW, 국제적기업간부급, 간호사 포함,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, 종교이민)
각종 비이민비자 (H1B, R1, E2, E1, L1, F1, O, P, TN/TD비자 등), DACA, 601A Waiver, 245i
추방유예상담, J1 Waiver, 영주권 인터뷰, 재입국허가서, 영주권 재발급, 시민권 신청
*취업 영주권 상담 / DACA 연장접수* /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
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/강제퇴거명령(이빅션)/Title에 대한 분쟁–Quiet the title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상법 계약분쟁 소송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
천관우 변호사
서울고·연세대·법학박사
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
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
josephlaw1224@gmail.com
☎ 상담문의
LA Office 213-232-1655 3600 Wilshire Blvd., #1227, Los Angeles, CA 90010
OC Office 714-522-5220 6281 Beach Blvd., Suite 300, Buena Park, CA 90621